

0산자부 · 중기특위, 성장중소 · 중견기업에 맞춤형 정책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 대통령 보고에서 고속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동태적 성장과정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망과 정부 조달 시장을 새로운 수출주력 시장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3곳인 해외공동물류 AS센터를 내년에는 7곳으로 확대하고 무역·투자지원센터 설치와 중견기업의 해외 한상(韓商)·화상(華商) 연계, 해외진출 현지기업 간 네트워크 마련 등 맞춤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경영능력 향상을 겨냥해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사모펀드(PEF) 참여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장비를 통해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중견·지원기관 간의 협업(ICMS) 커뮤니티 구축과 협업기업 통합신용평가 등 전문기업 간 연계·협업생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 내년부터 에너지·자원분야 3개 R&D사업 통합규정으로 관리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자원분야 3개 R&D사업에 대하여 통합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내년부터 공동 운영·관리한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적 장치에 따라, 개별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기술개발사업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과 그 성과를 제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합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의 발굴을 위해 중·장기 기술지도(TRM)를 작성하여 방향성 있는 R&D를 추진하도록 하고, 3년마다 수정하여 기술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관련분야에서 기술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도록 하고,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의 공정성 있는 평가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진도보고서로 대체하고 단계 협약과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생략하는 등 연구수행자의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기존 전담기관 직원들이 하던 사업비 정산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해 정산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산자부, 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산업자원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장개척단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장개척단 운영 개선방안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수출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11월 3일에 열린 2005년 하반기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산자부와 KOTRA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시장개척단 파견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지역별로는 BRICs 지역이 전체 35%(2004년도)를 차지하면서 그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했고, 품목별로는 전문품목 시장개척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산업별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시장개척단 개선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문품목 시장개척단의 활성화, 지자체별·파견지역별 특화된 시장개척 활동 전개 등 지역별 시장개척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횟수 및 인원의 합리적 조정, 업체선정, 평가·관리시스템 강화 등 시장개척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회의결과와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초에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중 소 기 업 청 , ‘ 해 외 경 영 혁 신 컨 설 팅 사 례 ’ 보 급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최근 경제구조의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응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의 와튼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에서 수집한 경영혁신 컨설팅 사례를 번역·출판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컨설팅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례집은 지난 10월 초 국내 21개 기업의 컨설팅 우수사례 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와튼스쿨 중소기업개발센터가 수행한 컨설팅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사례집은 컨설팅에 대한 소기업 등의 인식전환과 컨설팅을 통해 개선과 변화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컨설팅 수요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전략·비전 설정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컨설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 보 , 기 술 평 가 보 증 활 성 화 방 안 마 련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기술평가보증의 질적 수준을 높여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평가체계 단순화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제도 도입 ▲기술평가인증서 제공범위 확대 등 기술평가보증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기보는 기존 2단계로 운영돼 온 기술평가시스템을 과거 5년간 축적된 기술자료 1만 1천여 개와 개별기업의 사 고발생여부 간 상관관계를 통계기법으로 분석해서 보증금액과 기술평가 수준에 따라 기초, 중간, 고급의 3단계로 개편했다. 그리고 평가등급이 B등급(기초단계 CC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일원화하는 등 보증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기술산업화 단계별로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제도를 새롭게 개발했다. 설립 후 3년이 지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으로, 기술평가 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의 보증지원 한도는 1개 기업당 30억원이고, 한도거래기간은 1년이다. 이밖에도 기술평가인증서의 부분보증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성·사업성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평가등급, 위험등급, 기술등급 등으로 표시한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 주 도 , 서 울 에 서 투 자 유 치 설 명 회 개 최

제주도(도지사 김태환)는 지난 11월 3일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업과 잠재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제주도는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기업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국제자유도시 인센티브 및 투자희망 기업에 대한 개별상담 등을 벌였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범위를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조정, 대상 범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투자분야를 관광, 문화, 실버 등 6개 분야에서 IT, BT, 의료, 교육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히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 의료의 선진지역화 ▲초·중등대학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국제적 교육 중심지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 의료 관련 생활환경 개선책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4/4분기 디지털콘텐츠대상 모집

국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품의 홍보·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후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IT벤처기업협회, 한국HD방송, MBC게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 **모집분야** : 개발완료 직전 또는 개발완료된 디지털콘텐츠 - 디지털영상, 온라인게임, 교육용콘텐츠, 모바일콘

텐츠, 웹정보콘텐츠, 차세대콘텐츠

- **수상작 특전** : 분기별 우수상(정보통신부장관상) 수여 및 연말종합시상(대통령상 외) 후보 자격 부여, 홍보·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외
- **접수마감** : 2005년 11월 22일(화)
- **신청관련사항** : www.software.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전화 02-2141-5453
이메일 dskim@software.or.kr

중소·벤처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혁신체험강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공동주관으로 11월 24일~26일까지 중소·벤처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박3일간 합숙을 통한 이론교육, 혁신현장 체험(민들레영토), 한계 체험(승마, 신악오토바이) 등을 통하여 CEO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주제를 모아 실천방안으로 제시해 주는 혁신 체험 경영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환경을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중소·벤처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후원** : 헤럴드경제, 커리어 다음
- **교육기간** : 2005년 11월 24일(목)~26일(토)/ 2박3일 합숙교육
- **교육대상** : 여성 CEO 30명 / 교육비 : 무료
- **교육장소** : 대웅경영개발원, 민들레영토

- **참가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www.kovwa.or.kr) 및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이메일 접수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 **신청마감** : 2005년 11월 19일(토)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kovwa.or.kr)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박희용 팀장
전화 02-6009-8505

추천 이랜서 명단 공개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여성전문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실시한 'KOVWA이랜서 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이랜서를 추천하고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 1% 가능성에 도전한다. **국제홍보인 방지현** (www.elancer.or.kr/카페/이랜서 전광판)
주요 경력 사항 : 산업자원부 '산업 혁신 포럼 2005' 학술회의 의전, 외교통상부 APEC 2005 의장실 인턴, IAS-ASIA 국제 행정학 대학 staff(영어권), 학술세미나 GSW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 volunteer 선발(통역, VIP영접, 의전), 필리핀 어학연수(연수 시, 외국인 boarding house 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마케팅 전문가 과정' 수료
- 모든 오감을 열고 언제나 멀티타이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리랜서 작가 김남희**(www.elancer.or.kr/카페/포커스 인터뷰)
주요 경력 사항 : 코오롱 사보 카피라이터, 기자, 천문연KVN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윤정아** (www.elancer.or.kr/카페/포커스 인터뷰)
주요 경력 사항 : 경기도청 신문, 웹진 기자 MBC 가이드, 사보, 헤드라인 뉴스, Good days 객원 기자, 서울미디어 정치 광고 기획
- 프로젝트 일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웹 기획자 권정숙(www.elancer.or.kr/카페/포커스 인터뷰)
주요 경력 사항 :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웹기획, LG전자 글로벌 웹사이트 Product 리뉴얼, LG전자 DIOS통합브랜드 사이트 웹기획 등 다수 프로젝트
- 이랜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오상민 주임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02-6009-8504,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vwa@kovwa.or.kr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덕 입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소 가운데 최초로 수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조용승)가 대덕특구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금융·정보통신·정보보호·암호 등 산업적 응용분야를 다룰 '산업수학 연구'를 비롯해 물리·화학·생명·경제 등 수학의 필요성이 높은 인접학문과의 융합분야를 다루는 '학제수학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순수 수학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수리과학연구소도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각 산업체 및 연구부서의 수학적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저널·논문·각종 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도 구상 중이며, 이를 위해 중·대형 컴퓨터 시스템 등 각종 연구 장비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초기 설립형태는 기초연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하며, 향후 연구성과에 따라 독립 연구부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과학기술부의 구상이다. 현재 연구원 내 행정동 3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 인력을 선발해 나갈 계획이다.

대덕특구, 공항·역에서 바로 '疏通 추진'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천공항-서울역-대전역을 잇는 주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특구 진입도로 건설'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육성계획'에 반영,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대덕특구 주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서울에서 1시간 내 특구 진입이 가능해지며, 특구에서 대전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으로 단축돼 특구 육성의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

특구진입도로 건설사업은 대전역에서 한밭대교, 갑천도시고속도로(외동IC), 대덕특구를 잇는 신규 개설도로다. 총 길이 16.7km에 기존도로 8.2km를 활용, 나머지 8.5km가 새롭게 건설된다. 하상도로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대전전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고 기존 도심과 둔산신도시, 특구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특구 주진입도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VD Scrap

"투명경영만이 벤처 부흥"

벤처계, 투명경영만이 벤처 부흥
투명경영만이 벤처 부흥을 이끄는 열쇠

벤처계 투명경영만이 벤처 부흥을 이끄는 열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계 투명경영만이 벤처 부흥을 이끄는 열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계 투명경영만이 벤처 부흥을 이끄는 열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2005년 11월 1일 한국경제 16면, 디지털타임스 14면
협회가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 발족, 내부회계관리 제도 조기도입 등 벤처업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벤처기업들 신뢰회복 나선다

벤처계, 윤리경영실천 운동 전개

벤처기업들이 윤리경영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실천 운동은 벤처기업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윤리경영실천 운동은 벤처기업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 2005년 11월 9일 내일신문 17면
정부가 이회복 산업지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벤처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살리기에 나섰다

정부, 벤처기업 기(氣) 살린다

업체 관계자 간담회 등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검토

정부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